

중소기업 대출문턱 높아져 자금조달 악화

업계 “올해 은행 기업부실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 규모 지난해보다 축소될 듯”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불투명한 실적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데다 취약 업종에 속한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에 빠져드는 협력업체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부실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회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상기업의 여신심사도 한층 간간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신규 대출 목표치를 11조 6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액인 16조1000억원에 비해 28%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대출 증가 목표치를 낮춘 것은 금융당국의 거둬들이는 대출확대 자제 요구 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국내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가파른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지속될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차이는 눈에 띄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금리 평균은 연 3.69%로 대기업 대출금리(3.14%)보다 0.55% 포인트 높았다. 이

는 0.63%포인트 벌어졌던 200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격차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2015년 3.40%에서 지난해 3.14%로 0.26%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은 3.87%에서 3.69%로 0.18%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높게 설정한 것이다. 한은이 국내 15개 은행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4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47) 이후 가장 높았다. 신용위험지수가 높을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산업은행은 최근 ‘기업대출시장 현황 및 특징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은행의 기업부실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간 등급의 신용 기업이나 담보가 부족한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기업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은 더욱 힘겨워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 창구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신용경색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매출 부진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금조달 환경마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협은행, 힐링 팜스테이 이벤트 실시

6월 30일까지... 주거래 계좌·신용대출 신규고객 대상

농협은행은 'NH 農心 - 농부의 마음 통장·적금'을 비롯한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힐링 팜스테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4월에 출시된 'NH 農心-농부의 마음 통장·적금'과 이달 말 출시 예정인 'NH출출 적금' 신규 가입고객은 물론 주거래 계좌 신규고객 및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총 350명에게 1박 2일간 농촌마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팜스테이 체험권(20명), 농산물 상품권 10만원권(30명), 우리 쌀 4kg(300명)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요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팜스테이 체험권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응모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이창현 마케팅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님들께 아름다운 농촌에서 즐거운 힐링 팜스테이를 체험하고 우리 농산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가축 열스트레스 실시간 확인 가능”

9월까지...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가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활용하면 5월에서 9월까지 지역마다 가축이 받는 열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온피해 발생 가능성에 맞춰 적절한 사육관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은 기상청 기상자료인 온도와 상대습도를 활용해 가축의 ‘열스트레스 지수(Temperature-

Humidity Index, 이하 THI)’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사람의 불쾌지수에 해당하는 THI는 수치가 높을수록 가축의 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한다. THI ‘경고단계’에서 가축은 사료섭취량과 체중 감소, 생산성 감소 등이 나타나고, ‘위험단계’에서는 심한 열떡거림과 탈수·탈진, 체내 전해질과 호르몬 균형 이상이 발생한다. THI가 ‘최고단계’인 경우 심하면 폐사한다. 축사 내부의 온도 상승은 사료섭취량 감소로 가축의 증체량을 떨어뜨리

며, 폐사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많아져 가금류 폐사 건수는 2015년 253만 마리에서 2016년 428만 마리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와 취약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저감과 복지를 고려한 사양기술, 사료 첨가제, 사료작물 신종종, ICT 정비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인 ‘한우리 누리집(hanwoori.nias.go.kr→가축사육기상정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회하려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날씨정보와 함께 축사 외부의 열스트레스 지수, 단계별 사양관리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시나리오(RCP)를 적용해 1973년부터 2100년까지의 여름철(5월~9월) 가축이 받는 열스트레스 지수 분포도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이성대 농업연구사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기상재해가 잦은 상황에서는 가축이 받는 환경요인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스템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폐사율 등을 개선해 농가의 안정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인재 양성 선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아카데미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나선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이번 무료 교육 과정은 7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공간정보 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지원서는 10일부터 26일까지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에 한해 소정의 훈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수료생은 국토정보공사 협약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 추천도 가능하다. 교육생은 서류면접심사로 선발되며, 결과는 12일부터 공간정보아카데미 홈페이지(<http://ksedu.or.kr>) 통해 게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가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LX는 공간정보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관련 분야의 인재를 배출,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롯데백 전주점,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랑나눔 봉사단’은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인보 노인 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사랑나눔 봉사단은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 40여명의 복지센터 어르신

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고, 아이스크림 콘모양의 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 드리는 ‘사랑의 케이션 달아들이기’ 행사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인재용 기자

한전 정읍지사, 샘골 어린이 큰잔치 부스 운영

한전 정읍지사는 지난 5일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95회 샘골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특성을 살린 전기 발전 자전거 체험과 부모체와 전도체를 구별하는 전기로봇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했다. 초여름 날씨로 인한 더위에 전기 발전 자전거를 돌려 선풍기를 작동시키는 체험이 인기를 얻었다. 또 집계를 물체에 접촉 전도체일 경

우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전기 로봇을 직접 만들고 꾸미는 체험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 부스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동안 학부모들에게는 미아예방 스마트밴드를 전달했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 GPS를 통해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으로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인재용 기자

카드사 연체율 ↑ 연체액도 ‘껍중’

지난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연체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KB국민·우리·하나·삼성 등 5개 카드사의 연체잔액(1개월 이상 연체)은 총 9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425억원(4.7%) 늘어난 것이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말 1.12%이던 연체율이 1.41%로 0.29%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액은 1030억원으로 27.2% 증

가했다. 하나카드는 연체율이 1.54%에서 1.67%로 0.13%포인트 올랐고, 연체액도 1050억원으로 6.7% 늘었다. 카드사의 연체율과 연체잔액이 커진 것은 신용관매나 카드 대출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올해 1분기 5개 카드사의 총 채권 잔액은 71조697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4% 늘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 잔액이 지난해 말 26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말 대비 11.9%(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